

20대 대전 청년 취업자, 돈보다 장래성과 사회적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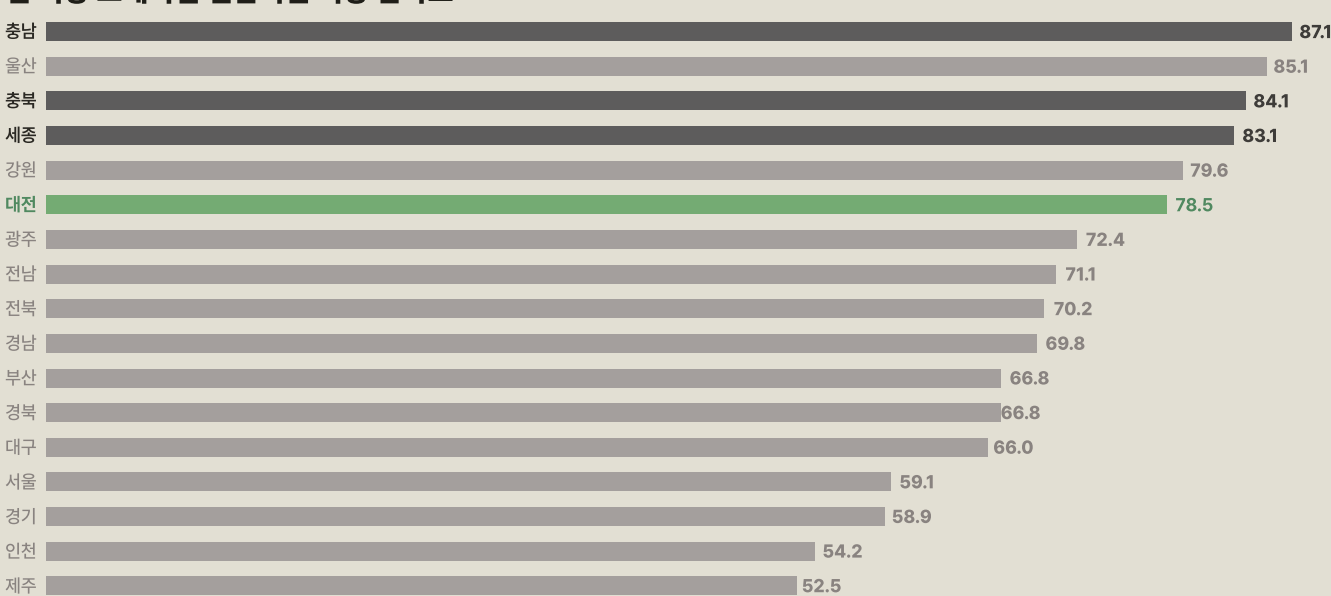
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거주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들이 바라는 직장은 무엇이며, 직장 만족도에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도 청년패널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소재지별 청년 취업자들의 직장 만족도를 분석했다. 대전 청년 취업자 78.5%는 현 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 청년 취업자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을까?

대전 20대 청년 취업자 78.5%, 현 직장에 전반적으로 만족

대전에 취업한 청년의 78.5%가 현직장에 만족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많으며, 6대 광역시 중 울산(85.1%)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전과 인접한 충남은 87.1%, 충북은 84.1%, 세종은 83.1%가 만족하고 있어, 충청권에 취업한 청년들의 직장 만족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다.

현 직장 소재지별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단위: %)



주*: 만족도는 '만족' 응답자와 '매우 만족' 응답자를 합한 비율임. 만족도 문항의 응답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청년패널조사(YP2021) 2차조사'

대전 20대 청년 취업자들은 장래가 유망한 직장, 서울 20대 청년 취업자들은 임금과 수입이 높은 직장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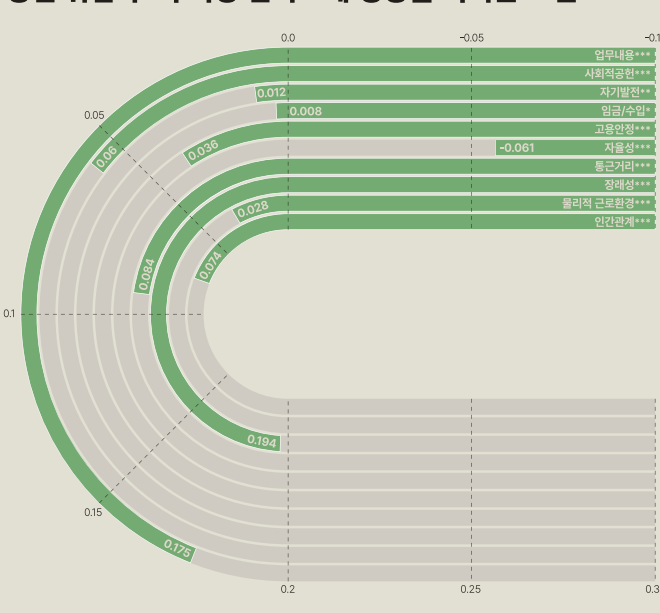
청년 취업자들의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인사고과 공정성과 복리후생 요인의 경우 임금근로자에게 응답받은 문항이므로 임금근로자 만족도 분석에서만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전국 청년 취업자들의 직장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내용이며, 임금과 수입, 물리적 근로환경, 인간관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국 청년 임금근로자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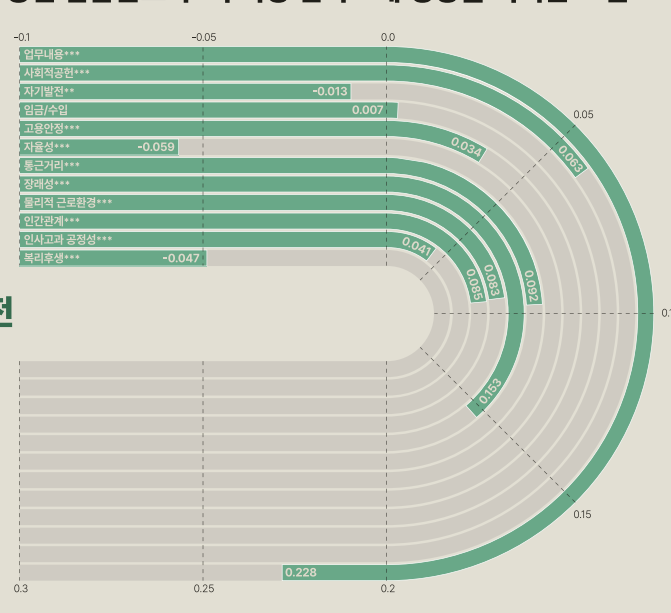
서울 청년 취업자들은 전국과 유사하게 업무내용, 임금과 수입, 인간관계, 물리적 근로환경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른 요인보다 업무내용 즉,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렇다.

대전 청년 취업자들은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 및 서울 대비 임금과 수입, 물리적 근로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적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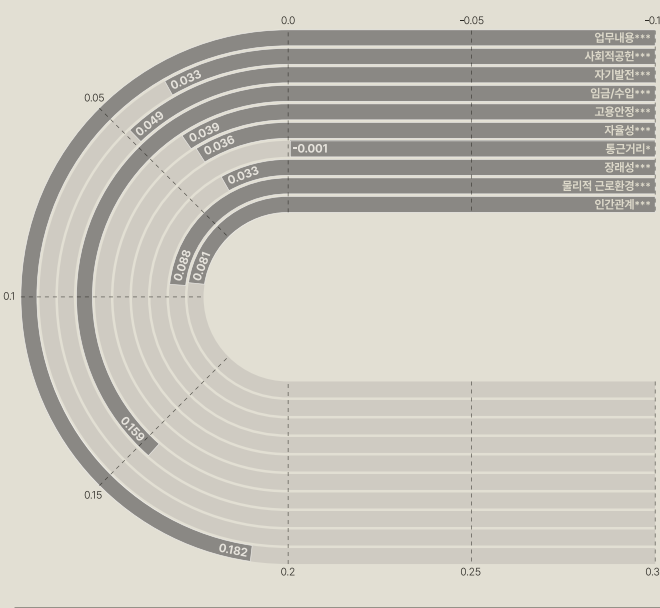
청년 취업자¹⁾의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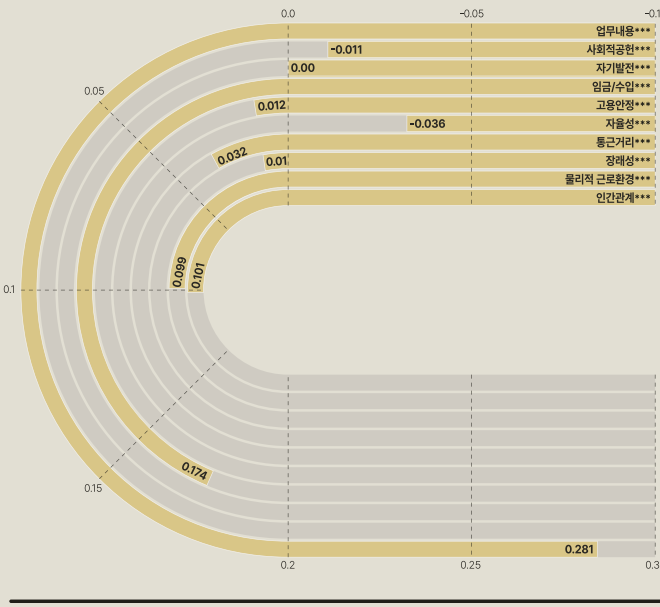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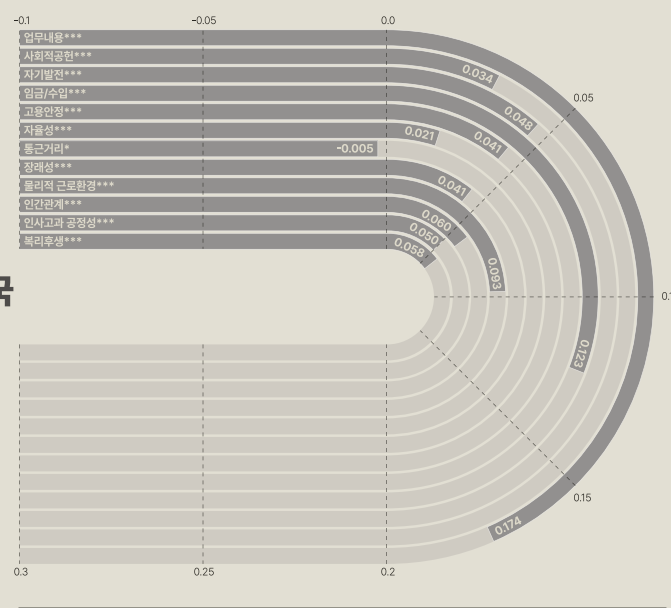
청년 임금근로자²⁾의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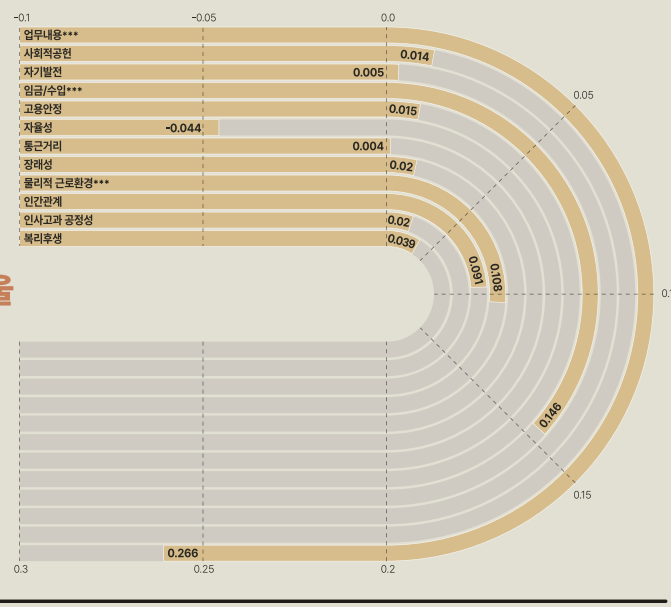
대전



전국



서울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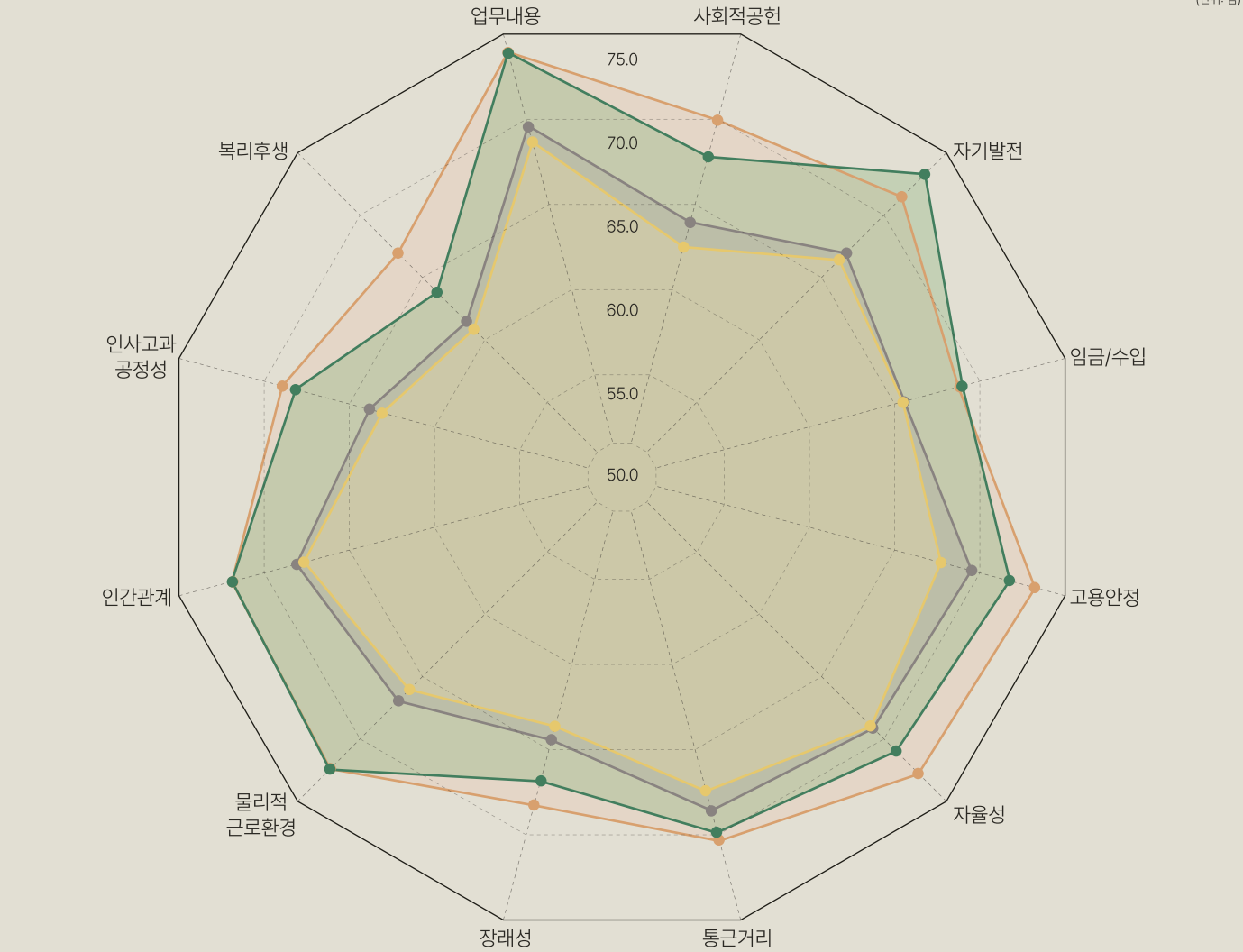
주1)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주2)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직업의 사회적 공헌도와 장래성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관심 필요

대전 청년 취업자들은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73.9점으로 가장 높고, 자기발전(73.4점), 물리적 근로환경(72.5점), 인간관계(71.9점), 고용안정(71.8점), 자율성(71.0점), 통근거리(69.9점), 임금과 수입(69.0점), 인사고과 공정성(68.2점), 사회적 공헌(67.9점), 장래성(66.9점), 복리후생(63.9점) 순으로 높다. 대전 청년 취업자들은 복리후생과 사회적 공헌, 자율성, 고용안정, 장래성, 인사고과 공정성, 통근거리,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충청권 평균보다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공헌과 장래성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대전 취업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 직장에 대한 세부 요인별 만족도



주: 위 그래프에 사용된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청년패널조사(YP2021) 2차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0,721명(2021년 기준 만 19~28세였던 청년층 12,213명 추적조사 진행했고 2차조사(2022년) 진행 시 조사대상 10,721명임)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22년 9월~12월(약 4개월)

▷ 공표주기/공표시기 : 조사기준년 익년 2월/2024년 2월

▷ 분석표본 : 전국 내국인 20대 청년 취업자 5,262명(분석 시 가중치 적용)

▷ 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2024), '청년패널조사 YP2021 2차 조사자료'

▷ 자료설명 : 청년실업은 지속된 경기위축, 경력 중시형 노동시장 변화, 교육·노동시장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노동시장 정보 교류의 미활성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실업 발생의 복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수행과제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P, Youth Panel)를 시작했다. 청년패널조사는 2021년부터 기존 패널의 장기추적에 따른 연령 노후화를 해소하고자 20대를 확충하고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조사가 새롭게 기획됐고, 2021년 기준 만 19~28세 청년층 12,000여명의 표본을 구축하여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